

# 충성대신문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제 **212**호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아름다운  
봄향기

충성대에 불어온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박성훈 / 편집인 김창언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강수정 / 편집국장장생도 이예찬 / 충성대신문사(054)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212호 사진제공 및 편집: 사진작가 윤대진, 대위 정수빈, 주무관 염재선, 이성주, 일병 이수우





①②③④⑤⑥⑦⑧  
최강 중대 선발전

## 2025 KAAY WEEK

학교는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1주일간 '충성대의 봄! 명예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2025 KAAY WEEK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KAAY WEEK는 ▶생도 퍼스트(First)에 입각한 생도 중심의 활동 ▶사관생도로서의 비전(Vision) 설정 및 동기부여 ▶자긍심 고취 및 심신의 힐링(Healing) ▶생도문화 활성화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생도들은 지난 KAAY WEEK 기간 동안 2026학년도 생도 모집과 연계하여 모교 등을 방문해 학교 입학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양일간에는 교내에서 축제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단련', '비전', '도약', '단결', '완상'이라는 다섯가지 핵심 콘셉트를 바탕으로 충성기초훈련과 동계 군사훈련

등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생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충성대에 찾아온 봄과 함께 비상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1일차에는 단련과 비전, 도약을 중점에 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생도들이 그동안 강도 높게 단련한 체력을 겨룰 수 있는 '최강중대선발전'이 펼쳐졌다. 턱걸이, 장애물 달리기, 팔굽혀펴기, 원전군장 이어달리기 등으로 진행된 선발전에서 생도들은 스스로 자신의 단련된 모습을 확인하고 중대별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오후에는 '꿈을 날리는 충성대버스킹'이라는 주제 아래 군악대와 생도들의 합동 버스킹 공연이

있었다. 경쾌한 봄 노래에 맞춰 생도들은 봄과 젊음을 만끽하면서 중이비행기에 자신의 꿈과 비전(Vision)을 적어 함께 날리면서 멋진 공연을 선사해 준 군악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꿈이 비상을 기원했다.

이어 충성대 연못 '호국정'에서는 봄꽃 독서회와 북 콘서트가 진행됐다. 프로그램 시작 전 30분간 핸드폰 전원을 끄고 호흡과 명상의 시간을 통해 바쁜 일상 속 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유 독서와 감상 나눔으로 자신의 목표를 되새기는 자리와 함께 '히어로이펙트'의 저자인 최영웅 소령(45기)의 북 콘서트를 통해 생도들은





1



4



5



6

123  
버스킹 공연



2



8



7

4567  
문화체육활동부 공연



3



9

8910111213  
체육대전



10



11



12



13

최영웅 소령(45기)의 북 콘서트를 통해 생도들은 독서를 통한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문화체육활동부인 태권도부, 응원부(시리우스), 그룹사운드부(카이게)의 공연과 드론 쇼가 진행됐다. 문화체육활동부 공연에서 생도들은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공연 이후 200여 대의 드론들이 만들어 내는 드론 쇼는 원석이었던 개인이 생도생활을 통해 다이아몬드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사관학교 생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2일차에는 단결과 완성에 중점을 두고 체육대전이 충성연병장에서 펼쳐졌다. 줄다리기, 기마전,

단체 줄넘기, 계주 등을 통해 생도들은 함께 땀 흘리며 더욱 단단해진 단결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오후는 충성의식으로 축제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계획한 61기 손강혁 생도는 "KAAY WEEK를 통해 사관생도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특히 꿈을 담아 날린 종이비행기처럼, 앞으로 내 인생의 비행이 더욱 힘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욱 단련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훈육관 나용현 소령은 "KAAY WEEK는 생도들이 스스로의 비전과 가치를 되새기고, 명예로운

장교로서의 길을 향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생도들의 성장과 자긍심을 북돋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7급 윤현수



# 2026년 생도모집, 무한한 가능성으로의 초대

## 팝업스토어, 비전설명회 등 다양한 모집홍보 시행



대구 팝업스토어

학교는 사관생도 원서접수에 발맞추어 새로운 형식의 모집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운영한 '팝업스토어'와 비전설명회가 대표적이다.

비전설명회는 3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4월 4일 대전, 4월 11일 수원, 4월 16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갑자기 나타난 가게'라는 의미를 지닌 팝업스토어(pop-up store)는 약 240만 인구가 있는 대구 지역, 특히 젊은층이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모습

가장 많이 모이는 동성로에서 일주일간 운영됐다. 도심 을 찾은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생도 모집에 대해 접하고, 궁금한 사항은 팝업스토어에 방문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했으며, 지원 및 입시 관련 전문 간부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또한 사관생도 지원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대학교수 및 입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전설명회를 열

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봄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대구, 대전, 수원, 서울 4개 도시에서 열린 비전설명회에서는 학교를 소개하는 다양한 영상을 상영하고, 입시 요강, 입학 후 교육 과정(일반학 및 군사학), 복지 혜택, 입관 후 진로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테이블별 소그룹 간담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는 앞으로도 대학방문 홍보를 비롯해 팝업스토어, 비전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집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올해 팝업스토어 운영과 비전설명회 결과를 분석하여 2026년에는 운영 지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대령(진) 최재호



제23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 행사에 참석한 학교 간부들이 육군3사관학교 모집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 비전설명회



대전 비전설명회



수원 비전설명회



서울 비전설명회



## 美 국무부주관 '2025 국제지도자 초청프로그램(IVLP)' 초청

### 인문학처 군사사학교수 중령 박동휘



2025.4.15(화) 오하이오주에 있는 민간 사이버보안컨설팅기업 TRUSTEDSEC 본사를 방문하여 민간사이버보안기업의 역할과 공공영역의 협력에 관한논의를 하고 있다.

군사사학과 교수 박동휘 중령이 2025년도 미국 국무부의 '국제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IVLP, 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참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사사학과 교수이자 충성대연구소 사이버·보안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한국 사이버안보 분야 대표로 지난 4월 5일부터 약 3주간 미국을 방문해, 미 국무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회의와 행사에 참석했다.

'국제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가 1940년에 시작한 전통 있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의 차세대 리더를 선정해 미국으로 초청하고, 안보, 기후, 문화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인물로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이어, 줄리아 길러드 등 세계 각국 전·현직 국가 지도자와 학자, 기업가 등이 있다. 박 교수가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한-미 파트너십(Strengthening Cybersecurity Cooperation: U.S.-ROK Partnerships)'이다.

박 교수는 워싱턴 D.C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순회하

며, 백악관 관련 부서, 미 의회 위원회,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 군 관련 부대, 연구소, 싱크탱크, 대학, 민간 사이버안보 기업 등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미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이버안보 분야가 IVLP 주제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교수가 대한민국 대표로 최초 참석하게 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박 교수는 현대전쟁에서의 국가 사이버전 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군으로 복귀해 사관생도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의 모든 것』을 단독 집필하여 2022년 국방부 진중문고, 2023년 세종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는 등 저술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한국 대표로 선정돼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해 미국 및 국제사회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협력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령 권영우



# 생도들과 함께하는 책의 축제, 충성대 북페스타

학교는 제61회 도서관의 날(4월 12일)을 맞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충성대 북페스타'를 운영하며 생도들의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123 책 속 보물을 찾은 생도들
- 456 시험기간 중 연장 운영된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중인 생도들

이번 행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책 속 보물을 찾아라!'는 학교 주요직위자들이 직접 추천한 도서에 '행운카드'를 숨겨두고, 해당 책을 대출한 생도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책 속에서 행운을 찾는 색다른 방식에 생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도서관 운영을 24시까지로 연장하여, 사관학교에서의 첫 시험을 맞이하는 62기 생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또한, 마음책 우체통 프로그램을 통해 생도들은 선물하고 싶은 사람과 책, 그리고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구매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감성 이벤트도 운영하였다. KAAYWEEK 기간 중 진행된 리탄 다용도 꽃이 만들기 체험은 생도들이 손재주를 뽐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789 마음 우체통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생도들
- 101112 리탄다용도 꽃이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는 생도들



4월 26일에는 경주 동리목월문학관과 불국사를 방문하는 '문학&역사기행'이 진행되어 생도들이 지역 문화와 문학적 감성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는 이달의 다독상 수상자로 62기 염창훈, 사호준 생도를 선정해 꾸준한 독서 활동을 장려하며, 충성대 북페스타를 뜻깊게 마무리했다.

131415 동리목월문학관/불국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생도들



봄의 시작을 알리는

## 2025 충성대 북 페스타

기간 : 2025.3.31.(월) ~ 4.30.(수) / 주관 : 육군3사관학교 도서관



# 충성대, 따뜻한 봄을 담다...

##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

충성대에도 봄이 찾아왔다.  
비록 벚꽃 축제는 갈 수 없었지만, 충성대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봄을 즐기며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다.

생도들은 호국정, 충용관, 학무관 앞에서 벚꽃과 목련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으며, 선·후배 및 동기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옴과  
동시에 중간고사가 시작되었고  
벚꽃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생도들은 중간고사 준비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지만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자 학교 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62기 김 두 나, 김 동 희 기자생도





# 승마부에서 만나는 화랑정신

“

충성대에는 생도들의 인격적 성장과 단결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독특한 성격과 깊은 철학을 가진 활동이 있다. 바로 ‘승마부’이다. 말이라는 생명체와 함께하는 이 스포츠는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책임감, 집중력, 배려심, 협동심 등 다양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호에서는 화랑의 전통을 계승하며, 성장하는 충성대 승마부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 전통을 잇는 말(馬), 가치를 잇는 사람(人)



승마부 부장 61기 권미진 생도

충성대에서의 승마는 단지 색다른 스포츠 체험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전통을 계승하고, 정신을 이어받는 의미 있는 수련의 과정이다. 승마부 부장인 61기 권미진 생도는 “승마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생명과 교감하며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부서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화랑정신의 뿌리가 깊은 지역에서 승마를 배우는 경험은 더욱 특별하다. “화랑들이 수련하던 터전에서 말과 함께 훈련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큼니다. 전통과 정신, 그리고 생명과의 소통이 공존하는 활동이죠”. 말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 과정은 단순한 스포츠 기술이 아니라, 과거 무사들이 익혔던 품성과 내면의 절제를 배우는 과거와 현재의 수련 방식의 접목이라 할 수 있다.

## 생명체와 함께하는 스포츠의 진면목

승마부의 주요 활동은 단순히 말을 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말 돌보기, 기본기 훈련, 대회 참가, 충성제 참여 등 종합적

인 관리와 협동이 필요하다. 하루하루의 훈련은 꾸준한 반복이지만, 그 속에서 부원들은 말과 깊은 신뢰를 쌓는다. 한 부원은 “처음에는 말 타는 게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생명과 교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라며 “말도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말이 나를 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야 진짜 승마가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승마는 인간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생명과 함께 움직이는 동반자적 스포츠다. 명령이 아닌 교감으로 말과 호흡을 맞춰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생도들은 자연스럽게 책임감, 집중력, 인내심을 체득하게 된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충성제’

승마부의 존재감을 가장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무대는 바로 충성제다. 생도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큰 행사인 만큼, 승마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24년 충성제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직접 타보며 교감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말을 타는 체험뿐만 아니라, 말에게 먹이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방문객들도 승마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생명과의 유대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승마를 새롭게 바라보는 걸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체험이 누군가에겐 평생 기억으로 남는 순간이 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승마부 생도가 말 위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 승마부가 가르쳐준 삶의 태도

승마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부원들은 책임감과 협동심을 꼽았다. “말과 함께할 때에는 늘 긴장 속에서 집중해야 하고,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임관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돌보는 업무는 단순히 지시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꾸준한 관리, 그리고 배려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장차 장교가 되는 생도들의 리더십으로 연결된다. “처음에는 개인 스포츠처럼 느껴졌지만, 갈수록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 선배에서 후배로, 책임과 전통을 잇다.

올해 승마부의 목표에 대해 묻자, 부장은 “후배들에게 승마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62기 후배들이 처음 승마를 접할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말과 교감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책임감을 배우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승마부는 선배와 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승마부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서 분위기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저희 승마부는 그저 한 해 활동하고 끝나는 부서가 아닙니다. 임관 이후에도 함께 한 경험이 뚜렷하게 남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부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승마부 생도들이 승마 훈련을 하고 있다.

## 말과 함께 배우는 리더십, 그리고 인격

승마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단지 운동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장차 장교로서, 더 나아가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말이라는 생명체와 함께 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단련하고, 공동체를 이해하며,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몸소 익히는 곳. 앞으로도 충성대 승마부는 말과 함께 달리며, 생도들의 정신력을 기르고, 강인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워주는 소중한 활동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61기 오민석, 62기 강태형, 김지유 기자생도

## 훈육관 인터뷰

### 3km 11분 10초! 생도보다 빨리 달리는 훈육관의 비결은?

2025년 체력검정에서 3km 달리기 11분 10초, 윗몸일으키기 104회, 팔굽혀펴기 100회로 특급 기록을 받은 6훈육관 강준구 소령(3사 46기). 생도들과 함께 훈련장을 달리며, 때로는 앞서 나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생도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자극이 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신력과 체력을 유지해온 그는 어떻게 지금의 체력을 만들어왔을까? 그 비결을 들어보았다.

Q 이번 체력검정,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나요?

A 저는 이번 체력검정에서 제 실제 나이 기준이 아닌, 25세 이하생도들의 기준으로 임했습니다. 생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Q 체력검정에서 전 종목 특급을 받으셨고, 특히 3km 달리기의 경우 11분 10초를 기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꾸준한 체력 유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A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생도 시절부터 몸에 밴 루틴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2년간 다져진 훈련 습관이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덕분에 16년 동안 큰 흔들림 없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생도생활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특히 체력이 많이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Q 체력관리뿐 아니라 훈육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좋은 훈육’이란 생도들이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진심을 다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훈육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생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는 어떤 걸까요?

A 역시 인성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전한 사고와 균형 잡힌 정신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인성 함양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인성은 꼭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체력 단련과 학업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자질입니다. 장차 장교가 될 생도라면 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고 다듬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훈육관님과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3km 11분 10초라는 기록 뒤에 숨은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태도, 그리고 체력과 인성을 함께 키워가는 일상이었다. 그 꾸준한 실천이 오늘의 특급 체력을 만든다. 결국 비결은 ‘습관’과 ‘마음가짐’이다.

62기 김동희, 이가영 기자생도



생도들과 함께 땀결을 하고 있는 6훈육관 소령 강준구(사진 오른쪽 아래)



# ‘백운(白雲)’이라는 이름 아래, 첫봄을 맞이한 62기

## 백운 62기

흰 구름(白雲)처럼 고결한 마음으로  
더 높고 더 넓은 비전과 이상을 품은  
62기 사관생도

우리는 고결한 인성과 청렴한 자세,  
패기와 포용력, 강인한 군인정신과  
탁월한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참된 군인이 되겠습니다.

### Q 기수 명칭 1위에 선정된 소감은?

A 제가 직접 만든 기수명이 62기를 대표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기수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상징이기에 더욱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실제로 선정되어 정말 기쁩니다.

### Q 공모전에 응모하게 된 계기는?

A 기초군사훈련 때부터 우리 기수를 대표할 의미 있는 명칭을 고민해왔습니다. 평소 공모전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 공모전은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 ‘백운’이라는 명칭을 떠올리게 된 배경은?

A 사관생도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명예’를 떠올렸습니다. 명예는 저에게 고귀하고 순수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이미지와 연결하였습니다. 흰 구름처럼 맑고 고결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 Q ‘백운’이 62기 생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

A 흰 구름처럼 맑고 당당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 기수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백운’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62기가 순수한 열정을 품고 끝까지 함께하며 명예롭고 본이 되는 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 Q 마지막으로, 62기 동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백운’이라는 이름을 빛내며, 사관생도로서의 명예를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3학년(62기) 나 호익 생도  
(기수명 ‘백운’ 제안자)

### 새로운 이름, 새로운 출발

이제 62기 생도들은 ‘백운’이라는 기수명 아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백운’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함께한 시간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다. 앞으로 이 이름처럼 맑고 고결한 정신으로 생도 생활에 매진해 나갈 62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61기이예 찬, 62기신윤 주  
기자생도

## 생도 지휘군무직의 역할과 그들이 바라는 리더십

61기이예 찬 기자생도

### 여 단 장 생도 인터뷰

#### Q “여단장 생도”라는 직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여단장 생도는 여단의 장(長)으로서 여단을 지휘·감독하며, 여단 본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업무를 하달하며 결산을 보고받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간 및 비정기적으로 행정예규에 명시된 과업 중 미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중요 사항을 강조해 전파합니다. 각종 의식행사를 주관하며, 통제사항을 여단 차원에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Q 여단장 생도로서 바라는 생도여단의 모습은?

A 제가 바라는 생도여단은 ‘상호배려’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선후배 간 존중을 바탕으로 선배는 후배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후배는 그 지도를 따르며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관생도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체력단련에도 적극 참여하며, 명예로운 자세와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는 모습이 제가 바라는 여단의 모습입니다.

#### Q 여단장 생도를 꿈꾸는 62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무엇보다 학업이 우선입니다. 3학년 1학기부터 학업에 충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지휘군무 직책을 수행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동기와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여단장 생도는 생도여단 전체를 지휘하



4학년(61기) 여단장생도 김승건

며 훈육요원님과 의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수입니다. 꾸준한 체력 관리와 함께 구령 조정, 제식 숙달도 필수입니다. 자격 요건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초군사훈련 때 배운 기분을 잊지 않고 꾸준히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자격을 갖춘 멋진 생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1 대 대 장 생도 인터뷰

#### Q 1대대장 생도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A 대대장 생도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주 대대본부 회의를 주관하여 1대대 본부 인원들과 대대 내 애로사항을 종합합니다. 둘째로, 매일 아침점호 이후에 훈육요원님께 종합된 대대 간의사항 및 이상 유무를 보고드립니다. 셋째로, 대대장 생도로서 3총용관 관물대 통일인이나 복장 등 3총용관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단통합 점호나 귀영 점호, 출타신고 등의 주관자로서 점호를 실시합니다.

#### Q 1대대장 생도로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A 가장 큰 변화는 ‘책임감’과 ‘솔선수범’하는 태도입니다. 1대대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더 단단히 다잡았고,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소통에서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접근하며,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 Q 후배 생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잡지 마라!”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생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그어두면 앞으



4학년(61기) 1대대장생도 이현재

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작해보기도 전에 “나는 못해”, “이건 안돼”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도전하면 더욱 성장한 사관생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 6 중 대 장 생도 인터뷰

#### Q 6중대장 생도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중대장 생도의 업무는 대표적으로 중대를 대표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중대원들의 생활과 학업, 군사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상급 지휘관과 중대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대 내 규율을 정하고, 훈련과 학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또한, 각 소대장 생도들과 협력하여 중대원의 인적 사항이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동시에, 중대 내 단결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Q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A 최근에 있었던 25-1차 체력측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후배 생도들이 체력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목표 체력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감찬 6중대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 경험은 제 생도생활의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Q 25-1차 중대를 어떻게 이끌고 싶나요?

A 제가 생각하는 중대 운영의 핵심 요소는 소통과 단결,



4학년(61기) 6중대장생도 김정현

강한 체력입니다. 이 3가지를 중점으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중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대를 만들어, 중대 전체가 하나가 된 최강 6중대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 두 나라의 경험을 품은 사관생도, 그가 그리는 군인의 길

## 61기 신원겸 생도인터뷰



4학년(61기) 신원겸 생도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영어학과에 재학 중인 61기 신원겸 생도입니다. 충성기초훈련 당시 소대장 생도님의 모습을 보고 소대 대표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후 중대장 생도, 기훈 파견 생도를 거쳐 현재는 소대장 생도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어떻게 사관생도의 길을 걷게 되었나요?

A 어릴 적부터 약 17년간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부모님의 지원 아래 통역, 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초반 적응 과정과 인종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겪

어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에 태풍이 닥쳤을 당시 인도적 지원을 펼친 아리우부대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이란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예전부터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장교의 꿈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육군장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편입 사관학교' 제도를 통해 우리 학교를 알게 되었고, 주저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생도 생활 중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입교 당시 목표로 세운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훈지도생도, 또 하나는 소대장 생도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훈지도생도로 활동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언행 하나하나가 기훈생도들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점점 군인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훈생도들이 생도로서 첫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제게도 큰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기훈생도들에게 한 마디 전한다면?

A "기훈 1중대 4소대 2분대. 기훈지도생도로 선발된 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긴장과 고민이 많았어.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맙웠다. 생도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서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이겨내자. 앞으로도 무탈하게, 멋지게 많은 도전들을 해나가길 바란다. 많이 사랑한다."

61기 정다빈 기자생도

### Q 입교 전의 삶이 현재의 생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입교 2주 전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중국인학교를 다녔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친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학교 생활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지닌 동기들과 빠르게 어울릴 수 있었고, 적응도 수월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장교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의 경험은 정말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 Q 임관 후 본인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A 영어학과에서 향상시킨 어학 능력과 학교에서 배운 군사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육군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자기개발을 멈추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 61기 우에영 생도인터뷰



4학년(61기) 우에영 생도

### Q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컴퓨터학과에 재학 중인 61기 우에영 생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멕시코 이민 생활과 한국 귀국 후 적응 과정, 그리고 사관생도로서의 훈련과 도전을 거치며 제 자신만의 성장 방식과 목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군의 IT 발전과 국방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멕시코에서 성장한 경험이 사관생도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저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멕시코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인 이민으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어를 전혀 몰라 영어로 긴장한 소통하며 학교생활을 시작했지만, 축구를 통해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수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저만의 강점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Q 한국으로 돌아온 후 가장 어려웠던 점과 흥미로웠던 점이 있다면?

A 한국에 귀국한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대학을 다녔던 제가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진로를 다시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릴 적 꿈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보면,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귀국 후 새로운 환경에서 외롭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오랫동안 꿈꿔왔던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할 사관생도로서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 Q 기초군사훈련 지도생도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지도생도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2024년 충성기초훈련 때였습니다. 당시 지도생도들의 모습이 제가 꿈꾸던 사관생도의 이상적인 모습과 같았고, "나도 저런 사관생도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이 훈련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관생도 3학년이 된 후, 저는 지도생도에 선발되어 62기 후배생도들에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고, 감히 하지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Q 기초군사훈련 지도생도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은 무엇일까요?

A 제가 생각하는 지도생도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감과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새롭게

입교한 기훈생도들에게는 군 생활의 첫걸음이자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기초훈련 수료 후 당당한 사관생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도생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후배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생도인 제가 먼저 올바른 사관생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의 본대원들도 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모범을 보이며 솔선수범하려 노력했습니다.

### Q 우등상을 수상했을 때의 감정과 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A 수상 당시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만, 가장 크게 다가온 감정은 뿌듯함이었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노력이 증명된 순간이었고, 특히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로서 당당히 수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사실, 3학년 생도생활의 목표가 우등상을 수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관생도로서 맡은 역할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갔을 뿐인데, 그 결과 우등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Q 우등상 수상이 앞으로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또 다른 상을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요?

A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낸 경험과 그로 인한 결과를 보며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정진할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는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지금까지 극복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끝까지 노력해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 Q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군사기술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장교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전과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보안 강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 조직의 정보보안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관생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실무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 Q 62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62기 후배 생도 여러분! 첫 생도 생활을 시작하며 설렘과 긴장이 클 것입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숨이 차올라도 한 걸음 더 뛰고, 피곤해도 한 글자 더 읽고, 동기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 더 존중하고 화해하는 것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생도 생활을 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61기 나은비, 62기 이가영 기자생도



## 칼럼 I



소령 홍 힘 찬  
(사회학처법정학 교수)

**일반적**으로 군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력을 단련하고 전투를 위한 기술과 전술·전략을 익히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실제 군인의 삶은 단순히 체력단련과 전투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장교는 조직의 관리자로서 다양한 환경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지적 역량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는 생도들이

장교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휘근무, 당직근무, 명예위원, 동기회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도들은 실무적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법을 배운다. 즉, 사관생도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공공조직의 관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행정학은 공공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조직(분대, 교반 등)에 이익이 되더라도 타 소대나 중대, 더 나아가 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그것에 합당한 선택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효과성이란 특정 결정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조직 내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그 방법이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가?”, ‘이 행동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등을 스스로 질문하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주변의 문제를 보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이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공공관리자이자 행정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 공공관리자로서의 군인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군과 같은 공공조직에서 필요한 공공성,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성이란 특정 행위나 결정이 단순히 개인이나 소속 조직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조직에서부터 군과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어떠한 결정이 나 자신이나 소속

나의 방법이 목적 달성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없거나 혹은 목적을 달성할 지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효율성이란 투입한 자원(시간, 인력, 예산 등)에 대비하여 산출된 효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성을 고민할 때에는 ‘현재 내가 보유한 자원은 무엇인

모든 장교는 군인인 동시에 행정학자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장교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 세상의 모든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공공관리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 오늘부터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방식을 발전시키고, 우리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 칼럼 II



소령 김 강 원  
(이학처 AI·시스템과학 교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이제 현대 사회의 중심 기술이 되었다.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모방하도록 설계한 이 기술은 교육, 연구,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그것을 단순한 도구에서 사람과 함께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동반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가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을 위한 설계가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기술의 정교함과 속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설계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공지능은 그 시작과 끝에 인간이라는 핵심 요소가 존재한다. 우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구조를 본떠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망은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의 작동 방식에서 착안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 제공되는 결과물을 사용하는 주체 역시 인간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구현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인간이라는 핵심 요소의 특성과 한계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신체·인지·조직적인 측면에서 다양

응용 연구 분야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설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간공학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세 가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Human-AI Interaction)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정보를 주고받는 창구인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탐구한다. 챗봇, 음성 지원 서비스 등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효과적인 설계 등이 대표 사례이다. 사용자의 신체·인지적 부하 없이 쉽고 직관적으로 인공지능

과 인공지능이 협력해 수행하는 과업의 수행도(Performance)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인간-로봇 상호작용(Human-Robot Interaction)에 관한 연구들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의 물리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로봇의 조작성, 반응성, 안전성, 신뢰 형성 등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인간과 로봇 간의 거리, 이동 속도, 조작 방식 등에 대한 최적화된 설정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공지능, 인간을 위한 설계가 우선이다

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어 제공되는 기술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조작하기 어렵거나, 주어진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여러 사용자로 이루어진 조직의 운영 방식 등과 충돌한다면 그 기술은 실용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공학(Human Factors and Ergonomics)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갖는 신체·인지·조직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능이 제공한 정보를 이해하고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인간-인공지능 협업(Human-AI Teaming/Collaboration)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탐색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수행하는 과업의 맥락에 따라 인간의 개입 시점,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대응 정도 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된 효과적인 협력 구조의 활용은 군사, 재난 대응, 의료, 항공 등 고위험 환경에서 인간

이처럼 인간공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과 인간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공학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인간 중심 설계(Human-Centered Design)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인간을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설계의 중심 요소로 간주하며, 개발 초기부터 인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또한 인간 중심 설계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현시대를 상징하는 중심 기술이자 엄청난 성능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칼럼 III



중위(진) 구 본 윤  
(사회학처 정치외교학 교수)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게 억제(deterrence)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임무가 되었다. 억제란 상대에게 특정 행위(군사력 사용)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와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로 구분된다.

응징적 억제는 상대가 특정 행동할 경우 그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상대가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강력한 보복을 통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달성된다. 거부적 억제는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통해 추구하는 기대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 상대의 군사력을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을 통해 무력화하거나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등을 통해 구현된다.

현행 북핵 억제는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와 독자 억제책인 한국형 3축 체계를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응징적 억제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일을 요격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현행 억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억제라는 절대적 임무 달성에는 억제의 직접적 대상인 북한 정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북한 정권은 김씨 일가의 백두혈통에 의한 개인 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 체제로, 정책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정적 압박점(pressure point)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이 최고지도자의 생존을 오히려 위협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것이 억제의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따라서 북핵 억제의 논리는 응징적 억제가 중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력 차원에서 확장억제를 통한 강력한 구현과 함께, 우리 군의 독자 전력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 억제, 그리고 북핵 억제

항공모함 등)과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통해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응징,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구현한다.

거부적 억제의 경우, 미국의 MD체계 및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선제적으로 타격하거나 발사된 미사

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체제의 안보보다 최고지도자 개인의 생존과 권력 유지에 있다. 이러한 체제는 대생적 취약성을 내포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주기적인 선거와 정권 교체, 그리고 지도자 유고 등 급변사태에서도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개인 독재체제인 북한은 지도자 후보군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체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다시 말해, 표적 제거(decapitation strike)에

한반도의 전략 환경은 더이상 재래전 패러다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래전과 핵전쟁 사이의 위험한 경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우리 군의 전략적 사고도 핵 사고(nuclear thinking)를 포함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핵 사고는 냉전 시대부터 발전해 온 정교한 전략 개념이자 심리 게임으로서, 단기간에 체화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고체계이다. 사관생도들 또한 핵 공학, 핵전략 및 억제 등 핵 사고 함양에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안보환경에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윤 용 로  
(주)코람코자산신탁 회장

**젊은 시절**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었다. 병사로 동해안에 근무하던 1980년 휴가를 나왔다가 소설가 이문열의 신작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를 가지고 귀대한 적이 있다. 그 소설은 이미 사라져가는 지방 종가집의 권위, 양반 의식 등 과거의 전통들이 급속히 쇠락해 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불행히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고 말았다. 세월은 영악스런 개인의 편이 되고 낡은 전통과 권위는 버림받았다"라는 구절이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책 제목만을 본 선임 부대원은 "(빨리 제대해서 고향에 가야 하는데) 재수 없게 왜 이런 책을 읽느냐"며 기합을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도 (실업보험 등이 없이도) 비교적 안정적인 한국 사회를 보면서 외국 전문가들이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의문이었지만 사실 그때 우리나라는 끈끈한 가족 간 유대관계가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척 중 어려

었다. 불과 24년 만에 가족의 가치는 이렇게 추락하였다.

예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았다. 종합상사에 다니는 계약직 직원의 어려움이 주 내용이었는데, 상사맨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부서 간에 업무를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회식 때는 화해하고 격려하는 등 활기차던 우리 수출의 최전선을 다시 보게 되는 감동이 있었다. 그 작품의 제작년도는 2014년이었

기여했다. 선진국에 못 미치는 생산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했다. 생산성이 선진국의 1/2 수준이라면 그들보다 일을 두 배 더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고 생산성도 올라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미국 근로자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절반 수준이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폭풍 등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우리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DNA가 있는데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과거에 그랬듯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운 일을 당한 이가 있으면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경제위기 앞에서 가족 간의 도움이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우 놀랍다. 17개국 평균 응답을 1위의 가치는 '가족'이었고 직업, 친구, 물질적 풍요 등이 뒤를 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가 1위였고 그다음이 건강, 가족 순이

다. 단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물론 현재 같으면 문제 되는 상사의 갑질도 있고 회식의 폐해 등 부적절한 행태도 있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함께 일했던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너무 동떨어진 다른 나라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기적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맨땅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국민의 땀과 열정이 크게



2025 트렌드 노트

# 시 시대, 손으로 만들고 발로 뛰면서 만드는 인간의 삶



정 석 환

바이브컴퍼니 생활번화관측소팀 연구원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시는 오래전부터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든 세대와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건 처음이다. 한때는 영화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자 개발자들의 기술 용어였던 시가, 이제는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었다. 기술 용어가 이처럼 빠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온 사례는 드물다. 과거 유행했던 ‘빅데이터’, ‘코딩’은 대중의 삶과 놀이로 완전히 스며들지 못했지만, 시는 다르다. 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부모님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며, 가족의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등 시는 ‘놀이’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유기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반려감’을 제공하며 위로와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화 이면에는 밝은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은 이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로 체감되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창의성을 요하는 예술 영역까지 뛰어넘는 시의 발전 속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 긴 시간, 피할수없는 고통, 마라톤과 뜨개질

일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가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어떻게 해야 인간성의 순도를 지킬 수 있을까?’ 그 해답 중 하나로 떠

오른 것이 바로 마라톤과 뜨개질이다. 두 활동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긴 시간,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인간적인 몰입감 즉,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는다. 시가 대신해줄 수 없는 바로 그 감각이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현재 전국적으로 ‘원판’ 현상을 보인다. 공지와 동시에 참가신청이 마감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마라톤 대회는 연일 성황을 이룬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훈련과 준비가 필수라는 점에서 마라톤은 기존의 일회성 체험형 트렌드와 결이 다르다. 일본 여행, 탕후루처럼 가벼운 호기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취미다. 훈련이 동반되기에, 오히려 더욱 선망받는다.

## 마라톤, 은유에서 인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운동은 ‘헬스’였다. 아직 헬스를 하는 인구가 훨씬 많지만, 요즘 ‘선망’의 무게중심은 마라톤 쪽으로 옮

백질’, ‘바디프로필’과 같이 보다 즉각적인 신체 결과 중심의 키워드가 나온다.

예전엔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이 단지는 유행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진짜 나

가능과 효율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듯 뜨개질은 ‘손’으로 우리를 아날로그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뜨개질의 여정을 단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뜨개 연관 표현어                          |      |    |       |
|------------------------------------|------|----|-------|
| 출처 : 셋트렌드, 2021.01.01 ~ 2024.12.31 |      |    |       |
| 순위                                 | 키워드  | 순위 | 키워드   |
| 1                                  | 좋아하다 | 11 | 하고싶다  |
| 2                                  | 예쁘다  | 12 | 못하다   |
| 3                                  | 귀엽다  | 13 | 아프다   |
| 4                                  | 해보다  | 14 | 어렵다   |
| 5                                  | 재미있다 | 15 | 아쉽다   |
| 6                                  | 힘들다  | 16 | 기분 좋다 |
| 7                                  | 배우다  | 17 | 즐거다   |
| 8                                  | 안되다  | 18 | 행복    |
| 9                                  | 완성하다 | 19 | 신나다   |
| 10                                 | 잘하다  | 20 | 바쁘다   |
| 21                                 | 귀찮다  | 22 | 신기하다  |
| 23                                 | 싫다   | 24 | 따뜻하다  |
| 25                                 | 편하다  | 26 | 뿌듯하다  |
| 27                                 | 힐링   | 28 | 놀라다   |
| 29                                 | 사고싶다 | 30 | 만족하다  |

뜨개 연관 표현어(출처 : Sometrend, 2021.1.1.~2024.12.31)

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이

- 1단계 - “해보다”, “배우다”
- 2단계 - “재미있다”, “신기하다”
- 3단계 - “어렵다”, “아프다”
- 4단계 - “뿌듯하다”, “완성한다”

특히 3단계에서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 실의 꼬임에 분노하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인해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견디며 결과물보다 더 깊은 인내력과 집중력을 얻는다.

## 중요한것은 성공이 아닌 성장,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 존경을 얻는 뜨개질과 마라톤

마라톤과 뜨개질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몰입과 성장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예쁜 목도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 훈련하고, 실타래를 풀고 다시 감는 그 꾸준한 과정 자체를 존경한다. 그동안 수많은 트렌드가 결과 한 장면에서 선망을 자극했다면, 이제는 삶 전체의 태도에서 선망을 느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일지도 모른다.

| 날짜 | 2022 |       |  | 2023 |       |  | 2024 |       |  | 2025 |       |  |
|----|------|-------|--|------|-------|--|------|-------|--|------|-------|--|
| 순위 | 연관어  | 건수    |  | 연관어  | 건수    |  | 연관어  | 건수    |  | 연관어  | 건수    |  |
| 1  | 기록   | 17723 |  | 기록   | 33624 |  | 기록   | 71078 |  | 목표   | 14806 |  |
| 2  | 생각   | 17608 |  | 목표   | 32618 |  | 목표   | 59246 |  | 기록   | 13561 |  |
| 3  | 목표   | 17310 |  | 생각   | 30945 |  | 코스   | 51765 |  | 훈련   | 11130 |  |
| 4  | 몸    | 14665 |  | 코스   | 28055 |  | 훈련   | 49463 |  | 몸    | 10882 |  |
| 5  | 코스   | 14440 |  | 몸    | 27608 |  | 페이스  | 47813 |  | 코스   | 10692 |  |
| 6  | 마음   | 13875 |  | 마음   | 26765 |  | 몸    | 47037 |  | 생각   | 10692 |  |
| 7  | 인생   | 12465 |  | 훈련   | 21670 |  | 생각   | 45383 |  | 페이스  | 9287  |  |
| 8  | 페이스  | 11274 |  | 페이스  | 20930 |  | 마음   | 38833 |  | 마음   | 8832  |  |
| 9  | 훈련   | 10804 |  | 인생   | 20017 |  | 도전   | 34816 |  | 도전   | 7805  |  |
| 10 | 도전   | 8809  |  | 도전   | 16939 |  | 인생   | 29800 |  | 건강   | 6128  |  |
| 11 | 체력   | 8648  |  | 체력   | 16547 |  | 체력   | 27914 |  | 체력   | 6010  |  |
| 12 | 힘    | 8599  |  | 다리   | 14700 |  | 출발   | 25475 |  | 겨울   | 5945  |  |
| 13 | 다리   | 8237  |  | 힘    | 14475 |  | 다리   | 24688 |  | 인생   | 5795  |  |
| 14 | 기분   | 6874  |  | 출발   | 14370 |  | 국제   | 24383 |  | 장거리  | 5291  |  |
| 15 | 출발   | 6832  |  | 속도   | 12156 |  | 기분   | 23969 |  | 에너지  | 5239  |  |

마라톤의 연관어, 인생의 하락, 훈련의 상승(출처 : Sometrend, 2019.1.1.~2025.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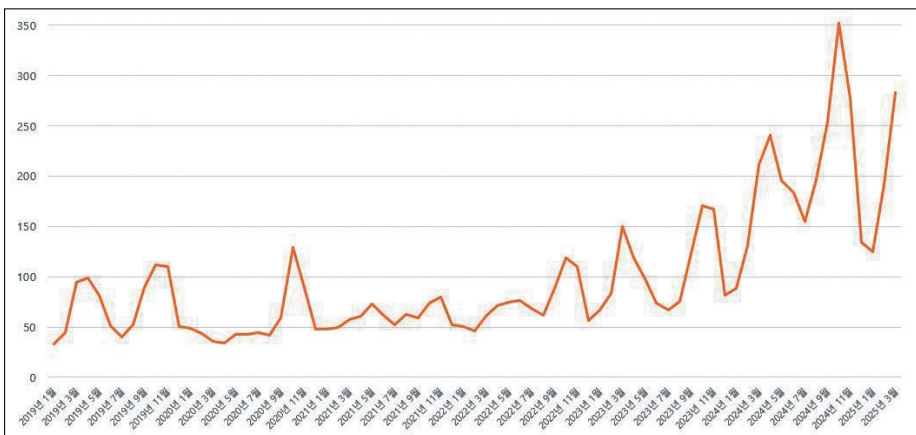
겨가고 있다. 연관 키워드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는 분명하다. 마라톤은 ‘삶’, ‘계획’, ‘훈련’, ‘인생’과 함께 언급되고, 헬스는 ‘근력’, ‘지방’, ‘단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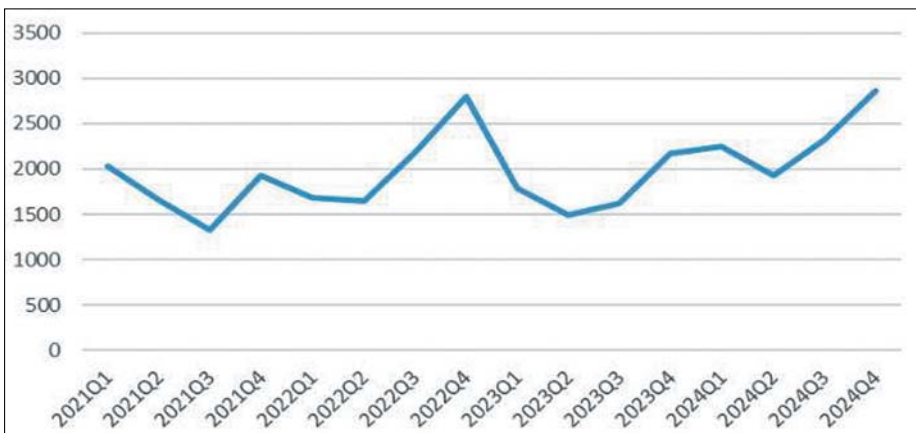
## 뜨개질, 시작 목표는 목도리, 얻는 것은 인생 교훈

뜨개질 트렌드도 마찬가지다. 서울 연희동의 ‘바늘이야기’처럼 실과 바늘을 파는 공간이 단순한 매장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2층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음료 한 잔과 함께 뜨개질에 몰입하고 있다. 혼자이든, 여럿이든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집중하며, 이 공간은 몰입이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다.

뜨개질은 ‘손’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손 움직임이 디지털 기기를 통한 ‘터치’에 국한되는 상황에서, 뜨개질은 손의 감각을 되살리며 디지털과 단절을 유도한다. 마라톤이 ‘발’로



마라톤의 언급 추이(출처 : Sometrend, 2019.1.1~2025.3.31)



마라톤의 언급 추이(출처 : Sometrend, 2021.1.1~2024.4.31)





## 동문(同門)의 소리 I



소령 김 충 년(3사 46기 / 보병)  
육군사관학교 생도여단 1중대 훈육관

- 제22보병사단수색대대 소대장, GOP대대 작전장교
- 제37보병사단 중대장, 신병교육대대 중대장
- 육군3사관학교 생도여단 6중대 훈육장교
- 육군대학소령 지휘참모과정(정규) 수료
- 제52보병사단 210여단 인사과장, 작전과장
- 육군3사관학교 임관성적우수상 (육군3사관학교장상)
- 대위 지휘참모과정 우수상 (보병학교 교육여단장상)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과정 재학중

과거 육군3사관학교 맹호 6중대 훈육장교로 임무 수행 했던, 현재는 육군사관학교 맹호 1중대 훈육관으로 복무중인 선배가 '훈육'에 대한 소회를 들려주고 싶다.

2009 ~ 2011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충성대에 서의 생도 생활을 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나를 다듬는 2년 동안의 생도 생활을 통해

## 본질(本質)을 사수하는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어느 조직에서나 마땅히 기여할 수 있는 장교가 되기 위해 정진 또 정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기저에는 항상 '훈육대장, 훈육장교' 님이 계셨다. 생도 시절 내가 보아왔던 훈육요원 선배 장교님들은 항상 올곧았으며, 나의 첫 번째 롤모델이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자체였다. 임관하며 정했던 몇 가지 목표 중 하나는 '훈육장교로서 후배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임관 후 강원도 고성, 충북 증평 등 전·후방 각지에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 수행한 결과, 훈육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선택했고, 결국 충성대를 떠나온지 정확히 10년만에 내가 생도 생활을 했던 맹호 6중대 훈육장교로 보직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생도들이 나를 보고 더욱 올바른 군성(軍性)을 함양할 수 있을까?" 수없이 되내고 많은 날을 고민하였다. 하지만 시대와 세대가 변한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한 '훈육'에 대한 가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이를 찾기 위해 생도 시절보다 더욱더 엄격히 절제하고 인내하며 스스로를 통제했다. 그것을 근간으로 뽑어져 나오는 '3사 출신 위관장교의 정석적 표본'을 생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녹록치 않았던 기억이 더 많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직책이 훈육요원이라 자부한다. 혹자는 '우월한 평가를 받는 보직', '진급을 위한 자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만큼 검증되고, 누구보다 후배장교 양성에 정성으로 임하는 자들이 보직되어 마땅하며, 실제로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드러나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정성껏 임무수행하였고, 훈육요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는 곧 생도 훈육에도 정성을 다해 임무수행했다는 자부이기도 하다. 정신없이 훈육장교 시절을 보냈지만 한가지는 자부할 수 있었다. '긍정적 방관자'로서는 명확히 임무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방관'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일 수 있으나, 필자는 그것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한다. 세대가 변한 생도들이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항상 자치지휘근무의 틀 속에서 기다렸다. 물론 시급한 사안은 개입하였다. 이는 곧 기쁨있는 지휘훈육 활동을 통해 생도들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나만의 훈육 철학이었다. 효과는 나름대로 좋았다고 자부한다. 시간이 흘러 모교에서 진급할 수 있었고, 육군대학을 수료하여 영관장교로서 수방사예하 52사단에 보직되었다. 대대 정작과장, 여단 인사과장, 여단 작전과장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다시 한번 육군사관학교 훈육관의 기회가 찾아왔다. "3사관학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후배 장교 양성에 열과 성을 다했던 훈육장교의 경험이란 생활 중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였던 시기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했고, 현시점에서 나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육사 후배장교 양성에 한번 더 능력을 발휘해 보고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육군사관학교 맹호 1중대 훈육관으로 보직되었다. 영관장교 직책인 훈육관의 입장에서 2번째 훈육을 시작하니, 그래도 나만의 훈육관(觀)이 생겼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생도는 날것이자 아직 미완성의 단계에 있는 신분이다. 도화지에 올곧은 색을 입혀주기 위해서 훈육관으로서 지도자이자 촉진자, 평가자, 나아가 생도들의 롤 모델로서 항상 고민하고 정진하고 있다. 훈육관으로서 3가지를 준수하고자 실천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적어본다.

## 기강이 바로선 맞춤형 생도훈육

생도 훈육에 있어 '융통성'은 방책의 다양성이지 '동급동급한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생도 세대를 잘 이해한 가운데 공감과 피드백을 해주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훈육'이 필수적이다. '훈육은 훈육요원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직원들이 있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이야기 해주고 싶다. 생도 훈육은 '학교 전체 노력의 통합'이 중요하며, '인성+군성'은 '통합훈육'을 통해 토대가 되어 그 위에 군사학, 일반학, 체력 단련 등의 굳건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 자율과 책임 근간의 생도군성(軍性)을 함양

규정에 입각한 자치지휘근무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변질된 방향은 과감히 지도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유능한, 헌신의 자세를 배양하기 위한 인성, 지식, 체력 등의 내면화는 생도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일기일회(一期一會)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 신독(愼獨)을 기반으로 한 준법정신 확립

생도 생활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 '병예'를 바탕으로 '정직'이 체득화될 수 있게 기다려주고, 생도 자정작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훈육요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치해야 한다. 보여지는 필멸은 생도들이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체득하는 훈육방식이다. 또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 준법정신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변질된 문화'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이벤트에는 때로 매우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 정예장교양성: 모교인 3사관학교, 현재 근무지인 육군사관학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목표, 중점이다. '병예'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날의 생도들이 자신감을 통해 인내와 절제를 배울 수 있게, 헌신의 마음가짐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정진하고 또 정진해본다.

## 동문(同門)의 소리 II



대위 한 경 화(3사 53기 / 인사)  
국방관리대학원 석사과정 (인사조직 전공)

- 9사단 공병대대 인사과장
- 9사단 인사처 상전장교 병인사관리장교
-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4지역대 인사장교
- 육군3사관학교 임관성적우수상(육군3사관학교장상)
-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성적우수상(교육사령관상)
- 대위 지휘참모과정 모범생(종합행정학교장상)
- 美 대위 지휘참모과정(인사) 외교메달수상 (美부관학교장메달)
- 국방어학원 영어(기본과정) 수료
- 美 대위 지휘참모과정(인사) 수료

최근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라는 책을 읽었다. 김소영 작가는 9년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4번의 귀촌을 경험하며,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길을 걸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책을 읽으며 내 군 생활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 생활도 하나의 긴 여정이며, 각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순례길과 같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

## 군 생활, 나만의 순례길을 걷는 과정

## 순례길과 군 생활의 닮은 점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단순한 여행을 위해, 누군가는 삶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군 생활도 마찬가지다. 생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지만, 결국 한 걸음씩 나아가며 나만의 의미를 찾아간다.

나는 입학시험을 급하게 준비하던 때를 떠올렸다. 막연한 목표였지만 결국 그 길의 출발점에 섰다. 첫 번째 순례길이 작가에게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면, 나에게도 기초군사훈련이 그랬다. 10동 막사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막상 기초군사훈련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더 큰 벽이 다가왔다. 작가가 첫 번째 순례길에서 예상보다 더 큰 육체적 한계를 느꼈던 것처럼, 나 역시 준비되지 않은 몸과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다.

이후 생도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따랐다. 마치 다음 순례길을 떠난 작가처럼, 나는 생도 3학년 때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도전에 맞닥뜨렸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서, 익숙해졌지만 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찾아왔다. 순례길이 끝날 때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듯, 군 생활도 끝없이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동기들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작가가

길 위에서 만난 스페인 커플의 이야기였다.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작가는 이야기한다.

군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생도 시절,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했던 동기들이 떠올랐다. 나 혼자였다면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군 생활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나의 생도 생활 간에 항상 도움을 주던 3중대 동기들과 법정학과 동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힘든 순간마다 옆에서 함께 걸어주었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전우들이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 귀촌 생활과 군 생활 :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작가는 도시를 떠나 귀촌을 여러 번 경험했다. 한적한 시골에서 생활하며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었다. 이 부분이나의 군 생활과 맞닿아 있었다.

나의 첫 부대는 9사단 백마부대였다. 본가에서는 400km 멀리 떨어져 있고, 숙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도시에서 벗어나 오

로지 나의 목표와 발전에 몰두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군부대는 대부분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를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귀촌 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나도 군 생활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 이 책이 내게 준 변화, 그리고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지나온 군 생활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생활도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나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생도들에게 '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길을 나서고, 한 걸음씩 내딛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성장해 있다. 군 생활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나 역시 군 생활을 하며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 시간들이 결국 나를 만들어주었다. 이 글을 읽는 생도들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위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순례길을 걷고 있다.





## ‘진짜사나이 한울림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18기 동기회가 주최하고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진짜사나이 한울림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가 3월 8일 개최됐다. 한울림합창단은 18기 예비역 동기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젊은 시절 3사에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2015년 1월,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를 위해 전군 최초로 창단됐으며, 현재 단장은 전지영(18기) 동문이 맡고 있다. 평균 연령은 66세로 단순한 노래를 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창단 초기에는 서툴렀지만, 지휘자 정병

우(18기) 동문의 지도와 단원들의 노력으로 10년간 탄탄한 실력을 쌓았다. 그동안 중무공 탄신 470주년 기념 광화문 연주회, 6·25전쟁 60주년 행사, 3사 충성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으며, 정기연주회와 국방부장관기 군가 경연대회 수상 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이번 10주년 공연은 ‘함께한 전우, 행복한 동행, 우리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군가, 가곡,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였다. 군가 메들리로 시작해 군포시니어합창단과의 합동 무대에서는 ‘내 맘의 강물’ 등 가곡을, 마지막으로 ‘사

내’, ‘바람’, ‘천년지기’ 등 친숙한 곡들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행사에는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 정인하(12기) 회관운영위원장 등 동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박경종 회장은 “60대 중반의 단원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집념은 감동적이며, 은퇴 후 삶을 아름답게 가꾸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롭다”고 격려했다. 전지영 단장은 “10년 동안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합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3사 총동문회



##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학교의 혁신적 사관생도 모집홍보에 적극 동참



3월 25일, 모교에서 2026년도 사관생도 모집 홍보 방안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열렸다.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 오윤식(23기) 수석부회장, 유영수(20기) 총괄/기획분과 위원장, 유병직(25기)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등 총동문회 임원과 동문 13명이 참석해, 모집 홍보 준비 사항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총동문회의 협조 방안 및 세부 계획을 협

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종료 후 대구 동성로에 설치된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생도 모집 홍보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모교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원서접수에 맞춰 3월 19일 수요일부터 7일간 대구 동성로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3월 27일 목요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VISION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생도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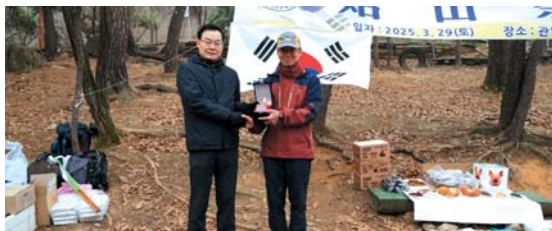
VISION 설명회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수원, 서울까지 이어졌다. 특히 서울 설명회는 학생과 학부모로 행사장이 가득 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참가 학생들은 장교라는 진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동문회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힘을 보탰다. 대구 설명회에는 김무길(23기) 대구 지역 동문회장 등 2명, 대전 설명회에는 이일권(22

기) 대전·세종·충남지역 동문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수원 설명회에는 구분규(22기) 수석부회장 등 2명이, 서울 설명회에는 박경종 총동문회장 및 임원 5명과 윤형진(8기) 동기회장 등 3명이 참석해 생도 모집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8기 동기는 학교에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63기 정시생도 및 64기 예비생도 모집은 5월 30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모교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생도 홍보 출장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야전부대 홍보 출장과 온라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총동문회 역시 동문회관 벽면에 대형 생도 모집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성공적인 사관생도 모집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가 정예 장교 양성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3사 총동문회



## 2025년 총동문회 산악회 시산제



3월 29일, 3월의 봄기운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바람과 간헐적인 눈발이 내리는 낯선 날씨 속에서, 관악산 관음사 옆 체육공원에서 시산제가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여 명의 산악 동호회 동문들이 참석해 한 해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했다. 특히, 전남 장흥에서 먼 길을 달려온 임영도(3기) 동문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동문 사랑과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이날 제7대 조임호(19기) 회장은 제8대 윤석호(21기) 회장에게 산악 동호회의 모든 활동을 인계하며 퇴임의 감회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경종(20기) 총동문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동문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총동문회 및 산악 동호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자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또한, 인사말을 통해 고

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산제에 참석해 준 선배 동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본행사에서는 산악인 선서, 축문 낭독, 헌작 및 절 등의 순으로 시산제 의식이 엄숙히 진행됐다. 2025년 한 해에도 모든 산악 동호회 회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을 이어가길 기원한다.

3사 총동문회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5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25. 3. 1.~ 4. 30. 까지 기부현황입니다.

※기간 외기부명단은 재단홈페이지, 충성대아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 ■ 단체

3사 39기 동기회 1,000만원

### ■ 학교발전 동참특별기부자('25. 3. 1.~4. 30.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97), 두석주(육사#51) 12(286), 문대섭(육사#52) 22, 변용성(육사#53 2147), 김대영(육사#59 2214), 문은석(육사#59 2120), 김진찬(육사#61) 295, 홍희중(육사#61) 2143, 홍인재(육사#63 2176), 문준호(육사#67) 284, 정운혁(육사#78 659), 한덕수(학군#26 2153), 남기웅(학군#29 2153), 구희곤(학군#32 4194), 송경태(학군#37) 21(70), 이정훈(학군#38 2123), 정우람(학군#46 264), 홍현신(학군#48 266), 유성국(학군#54 2121), 최재호(학사#29 2170), 임도현(학사#54 2149), 구주현(학사#53 2172), 성현애(학사#56 2192), 심정현(학사#58 2180), 박철진(간부#23 416), 최윤정(간사#38 2185), 송승현(원사) 2(27), 강필승(군무원) 1(33), 이수진(군무원) 2(56), 정시연(군무원) 2(67)

### ■ 졸업생 가족('25. 3. 1.~4. 30. 기부현황)

조경혜(45 황정태 모) 10(1,030), 백인숙(47 〇〇〇 모) 2(81), 안순봉(51 박상응 모) 20(1,390), 김현미(52 오치원 모) 2(93), 이영미(52 황성규 모) 6(430), 임성영(52 임강민 부) 2(25), 정정화(52 조강현 모) 2(386), 박일식(53 정필승 모) 2(188), 서완수(55 서지찬 부) 4(170), 정원섭(55 정준영 부) 1(158), 송학빈(56 송용준 부) 2(108), 정학숙(56 배웅휘 모) 20(1,610), 조재현(56 조성진 부) 60(1,040), 김근택(57 김광진 부) 4(114), 김순말(57 김준모 모) 6(110), 박경석(57 박찬환 부) 4(122), 오유미(57 김주현 모) 4(118), 이동희(57 박찬환 모) 6(167), 김한영(58 김범수 부) 10(195), 최결순(58 최승환 부) 2(61), 정신(59 김종현 모) 2(38), 조철만(59 조현웅 부) 6(80), 임성영(60 임상민 부) 2(25), 홍혜숙(60 김성호 모) 2(27)

### ■ 재학생 부모('25. 3. 1.~4. 30. 기부현황)

#### ▶ 4학년부모

김혁 152(654), 최영순 20(140), 최정호 1(12)

#### ▶ 3학년부모

박순화 10(10), 박찬희 6(6)

### ■ 졸업생('25. 3. 1.~4. 30.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10(295), 남훈호 10(1,594), 이기권 1(53), 임관택 2(124), 최익환 2(123)
- ▶ 2기 김진규 6(20), 윤영혁 10(670)
- ▶ 4기 임성기 10(170)
- ▶ 5기 김일순 10(510)
- ▶ 9기 권영호 10(640), 김현기 6(1,314), 윤지환 6(273), 최병학 10(1,455)
- ▶ 10기 권동환 10(215)
- ▶ 13기 도재록 5(5), 문성복 20(680)
- ▶ 14기 김길영 2(142), 김종환 2(100), 안호 20(2,448), 이순진 10(1,070), 이용진 10(590)
- ▶ 15기 김성연 2(570)
- ▶ 16기 이종우 2(204), 황병태 4(361)
- ▶ 17기 남용우 4(24), 이승도 10(110), 조남인 4(107)
- ▶ 18기 구연덕 2(174), 금용백 6(702), 노희태 3(282), 이기환 2(69), 진기삼 4(1,164)
- ▶ 19기 김익수 4(273), 이종형 6(386), 이창호 3(705), 홍성식 2(239), 황영태 6(242)
- ▶ 20기 박권순 4(236), 박동순 2(155)
- ▶ 21기 신철수 4(1,354), 이정문 4(298)
- ▶ 22기 이진성 4(301), 정경호 2(89), 조태환 4(225), 천병규 4(536)
- ▶ 23기 김태일 2(274), 신영찬 2(115), 오승욱 4(352), 정철재 4(269), 최승환 2(51), 허강수 4(367)
- ▶ 24기 박종만 4(140), 권오봉 2(238), 김도협 2(276), 김성래 4(120), 모경원 2(271), 박세철 2(114), 박찬웅 2(75), 방성대 6(271), 이문희 2(136), 정정현 2(235), 홍성희 4(132)
- ▶ 25기 김달호 2(13), 문봉성 4(273), 장무수 2(93), 전희준 2(349), 홍은표 2(243)
- ▶ 26기 고창준 2(512), 신태영 2(137), 양성안 2(40), 유근환 3(80), 이덕우 2(171), 이원주 6(244), 이태인 4(150), 임우영 2(288)
- ▶ 27기 김관수 6(211), 김덕중 2(112), 김용범 4(96), 김지덕 2(66), 김호복 6(422), 나현민 4(248), 석수열 2(89), 원희은 6(358), 이희은 2(284), 정광균 2(88)
- ▶ 28기 권승영 1(47), 권양철 4(167), 박용섭 4(257), 유정일 2(79), 윤석찬 2(185)
- ▶ 29기 김강식 2(289), 김태영 4(118), 박성훈 20(233), 박태용 2(176), 이상일 2(232), 정해균 2(18), 최인섭 2(156), 현대식 2(194), 황재식 2(26)
- ▶ 30기 김광석 4(90), 김동혁 10(170), 김홍빈 4(61), 남진오 2(99), 홍성범 2(81), 함민호 2(144)
- ▶ 31기 권동호 4(146), 김민식 4(178), 김영태 2(225), 김태희 1(52), 김희엽 2(270), 염향수 2(180), 이재춘 2(254), 이훈복 2(92), 최대집 2(90)
- ▶ 32기 권관덕 6(402), 김화용 2(157), 사인우 2(179), 송진수 5(140),

- 정영규 4(37), 주정용 2(27)
- ▶ 33기 권해욱 4(112), 고은중 2(6), 권오진 2(12), 김성근 4(232), 김현규 4(480), 남석진 2(181), 안경일 2(278), 안준영 6(251), 이정표 6(185), 정용호 2(22), 조용화 2(61), 조재봉 2(154), 홍종원 2(71)
- ▶ 34기 김민오 4(72), 김윤성 2(89), 김홍식 6(567), 류영택 4(141), 이무이 2(448), 임창훈 2(124), 정웅민 2(238), 정창근 2(130), 정춘환 2(100), 조수창 2(223), 홍영기 2(69)
- ▶ 35기 김경철 2(53), 김수열 2(113), 박병준 6(440), 박상우 1(107), 박상천 2(72), 박시근 2(224), 송명성 4(148), 유희승 4(42), 이문희 2(193), 이용우 4(20), 은명훈 4(52), 임창규 2(151), 장춘삼 2(188), 전성광 2(82), 정병삼 2(195), 정영석 6(179), 정호준 4(182), 하중수 2(69), 한중훈 7(458)
- ▶ 36기 김도희 4(142), 김동혁 2(133), 김현 2(172), 박광석 2(22), 박정훈 2(15), 양현승 2(258), 이광희 2(194), 이현중 4(38), 임종수 2(114), 장세호 2(245), 정우철 2(180), 조동권 2(261), 진연수 2(205), 홍석조 2(73)
- ▶ 37기 김상범 1(40), 김양훈 6(369), 김충기 4(235), 김흥년 2(276), 노진철 2(190), 문장권 2(64), 송석봉 4(239), 송용섭 4(373), 신용철 1(135), 엄태환 4(37), 안민환 2(60), 옥원호 2(176), 이관모 2(182), 이원형 4(363), 임원철 2(197), 정우진 2(114), 정태욱 4(202), 최정호 1(80), 함성규 2(147)
- ▶ 38기 강민 2(55), 김대현 2(58), 남상훈 10(30), 모을하 2(275), 문정민 2(160), 서성걸 2(117), 이경식 2(221), 위재익 4(161), 정한욱 2(252), 함기훈 2(128)
- ▶ 39기 권웅 2(100), 김의진 2(169), 김인경 2(127), 김지훈 4(173), 박철균 2(163), 송창현 4(199), 심용은 2(132), 양운차 1(109), 이대화 2(255), 이용렬 2(151), 장동준 4(137), 정대겸 2(70), 최현철 2(316)
- ▶ 40기 구자윤 4(258), 김백린 6(274), 김영우 6(376), 김우형 4(94), 김중욱 2(83), 김형수 2(219), 박상규 2(96), 박진하 2(135), 송석준 2(180), 유형선 2(126), 이호연 10(908), 이훈석 2(102), 조현 10(301), 주영우 2(51), 최창규 1(137), 하성남 5(81)
- ▶ 41기 권영철 2(109), 김석진 10(453), 박한지 2(228), 방현욱 2(119), 임성은 4(205), 전종상 10(417), 정기채 2(228), 최민규 4(197), 홍학현 6(112)
- ▶ 42기 강구한 2(60), 강재석 2(147), 강정희 2(196), 공광석 2(102), 김동우 2(170), 김동진 2(139), 김용민 2(106), 박용준 6(160), 박호찬 2(196), 손병현 2(214), 안정환 2(66), 윤광일 2(52), 윤희철 2(190), 이성호 2(71), 이승은 2(196), 이용학 2(199), 이호선 4(84), 정민기 2(189)
- ▶ 43기 김민수 2(68), 김민중 2(280), 노창래 2(87), 박희영 2(103), 배동직 2(249), 백두산 4(322), 엄태섭 2(88), 윤재필 2(4), 이남익 2(107), 이도훈 2(171), 이용희 4(309), 이호선 2(126),

- 최진호 2(159), 허광석 2(135)
- ▶ 44기 김대은 2(147), 김승돈 4(82), 권용혁 4(116), 서동준 2(182), 엄태천 2(135), 오승우 6(166), 이민재 2(174), 이영민 2(183), 이희성 4(223), 최재균 2(114)
- ▶ 45기 권기호 2(177), 김동호 2(185), 김성수 4(193), 박영일 2(180), 박지훈 2(128), 신유철 2(170), 이인권 2(125), 이진희 4(214), 정재현 2(181), 정진우 2(182), 채희용 2(160), 최영웅 2(3), 최충수 2(183)
- ▶ 46기 강승웅 4(342), 강준규 1(22), 권지민 2(56), 김대영 2(83), 김명철 2(169), 김정렬 2(169), 김정호 2(286), 김정훈 4(49), 김진용 2(203), 박수만 2(75), 백인정 2(169), 송원상 4(286), 오기리 2(167), 이상윤 2(169), 이산화 6(459), 이수원 2(172), 이진철 1(159), 정종택 6(509), 조광연 2(107), 조수빈 2(131), 차승우 2(131), 표상열 2(169), 한영인 2(169), 홍한표 2(160)
- ▶ 60기 강대환, 강은비, 강종연, 강준성, 고병찬, 고태영, 곽민경, 권서용, 권승현, 권영대, 권혁호, 권현성, 김관중, 김도연, 김도형, 김도혜, 김동우, 김동현, 김동희, 김민석, 김민석, 김민영, 김병진, 김세한솔, 김산재, 김성호, 김성환, 김성훈, 김수연, 김수형, 김승환, 김승현, 김예슬, 김요한, 김우진, 김윤재, 김재승, 김정훈, 김종길, 김주성, 김준석, 김준호, 김지민, 김지수, 김진원, 김진혁, 김태현, 김하진, 김한철, 김한민, 김현수, 김후태, 나광운, 나 림, 남건욱, 남준혁, 남현우, 노민혁, 노주영, 모민서, 박경로, 박용범, 박 민, 박상석, 박상철, 박사연, 박세강, 박수민, 박승규, 박승기, 박은석, 박정호, 박준혁, 박찬영, 박형규, 배진형, 사광성, 서성원, 서한별, 서한덕, 성기빈, 성경준, 손건호, 손서원, 손태웅, 송도경, 송성민, 송정호, 송준혁, 신동민, 신동준, 신정환, 신주원, 신준섭, 심호진, 안임지, 양원호, 양준석, 양영채, 양재용, 양태성, 여성민, 여정현, 오승준, 오어진, 오필승, 옥주영, 우진우, 유민혁, 유인서, 유재규, 유준혁, 윤범식, 윤어진, 윤정식, 윤주하, 이경민, 이경준, 이대은, 이동욱, 이민지, 이상훈, 이상훈, 이선우, 이선호, 이순신, 이영민, 이영호, 이영훈, 이원중, 이우주, 이윤호, 이윤하, 이재원, 이주영, 이주형, 이준호, 이창범, 이현석, 이현준, 이홍용, 이화빈, 임건명, 임경준, 임민혁, 임상민, 임성욱, 임성택, 임성훈, 임예원, 임지원, 임진전, 임희원, 장건, 장종혁, 장혁, 전수환, 전현재, 전호민, 전호제, 전희준, 정근영, 정동현, 정민재, 정수호, 정영석, 정욱진, 정윤재, 정진호, 정하늘, 정호영, 조승현, 조예광, 조재영, 조태현, 좌희정, 주도현, 주민진, 진준혁, 차영록, 최강훈, 최명진, 최성수, 최성웅, 최승혁, 최연성, 최예진, 최유찬, 최지상, 최현웅, 하우혁, 하지웅, 한기은, 한승호, 한제희, 허경형, 홍성명, 홍성재, 홍영민, 홍지민, 홍혜준, 황교현, 황성우, 황영재, 황재현(각1만원), 김민석, 박산혁, 윤운호, 이건우, 조경상, 채희동(각2만원), 김도현, 김현준, 정재현(각3만원)
- ▶ 47기~59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참고바랍니다.

## 39기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4월 25일 봄꽃이 만발한 충성대 교정에서 39기 임관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학교시설물 공사로 임관기념행사를 한해 늦춘 아쉬움은 있으나 완공된 현대식 학교 교육환경을 보면서 학교발전을 실감하고 모교방문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이재용 동기회장이 39기 동기회를 대표해 학교발

전기금 1,000만원을 모교발전을 위해 생도대장(정영규 준장, 기금조성위원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또 한번 39기들의 저력과 모교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39기 졸업생들의 단단한 모교사랑에 경의를 표하며 이러한 졸업생들이 있는 한 학교발전은 계속 될 것이며, 육군3사관학교의 미래를 더욱 빛날 것이다.

###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 생도 과정 2년간 전액 국비 지원 / 매월 품위유지비 지급  
\* 졸업 시 병역 + 취업 + 학위 동시 해결

#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2026학년도 생도모집

2025년 4월 14일 (월) ~ 5월 30일 (금)



문의: (054) 330-3434

지원방법: 인터넷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 접수 배너 클릭

카카오톡 채널 : 육군3사관학교 입학안내

육군3사관학교  
명예출입증  
발급 안내

#### •발급대상

학교 졸업생 또는 학교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간부  
※학교발전기여자 등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발급가능

#### •구비서류

1. 명예 출입증 발급 신청서, 보안 서약서
2. 증명사진(3x4) 1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역사항 기재 요망) 1부
4. 회신용 우표 동봉(등기발송용)

#### •안내사항

- 1.발송 주소: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육군3사관학교 행정부 계획운영처
- 2.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정보마당 > 학교방문 게시판참조

충성대신문을 보고많은 분들께서 명예출입증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